

2011. 7. 6.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1년 7월 7일(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KDI 대외협력팀

TEL 02) 958-4030 FAX 02) 960-0652 E-mail press@kdi.re.kr

2011년 상반기 북한경제 동향 분석과 평가

월간 『KDI 북한경제리뷰』 6월 특집호

- ☐ KDI는 월간 『KDI 북한경제리뷰』 6월 특집호를 발간, 분야별 북한 경제 전문가들의 기고를 통해 2011년 상반기 북한경제 동향을 상세히 점검하고 그 의미를 분석했음.
- ☐ 이번 특집호에 게재된 관련 논문들은 다음과 같음.
 - <개관> 2011년 북한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이석, KDI 연구위원)
 - 실물부문 및 산업동향 (이석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북한농업과 식량난 상황 (김영훈,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시장동향 및 평가 (양문수,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김상기, KDI 전문위원)
 - 남북교역 및 교류협력 동향 (이재호, KDI 전문위원)

※ 월간 『KDI 북한경제리뷰』는 향후 북한의 경제동향을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분야별로 심층 분석하는 논문들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문의: 이 석 KDI 북한경제연구팀장, 02-958-4207

〈2011년 상반기 북한경제 동향 분석과 평가〉

1. 개관 - 2011년 북한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북한경제에 나타난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우리정부의 5.24 조치 및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악화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가 곳곳에서 감지된다는 사실임.
- 5.24 조치로 북한의(일반교역 및 위탁가공) 대남 수출액은 2010년 1~5월 중 월평균 4천만 달러에서, 2010년 6~12월의 월평균 2천만 달러, 그리고 올해 1~4월 중에는 1백만 달러로 하락
- 물론 같은 기간 중 북한의 대중 수출이 크게 늘어 금액 면에서는 대남 수출의 감소를 상쇄했으나, 이를 근거로 북한의 대중 수출이 대남 수출을 대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 북한의 월평균 대중 수출: 5천만 달러(2010.1~5) → 1.3억 달러(2010.6~12) → 1.3억 달러(2011.1~4)
- 예를 들어, 5.24 조치 이전인 2010년 1~5월에 비해 북한은 같은 해 6~12월 중 HS 6단위 기준으로 총 186개 품목을 중국에 새로 수출했는데, 이 중 한국과 거래가 있었던 제품은 21개 품목에 불과한 반면 한국과 거래가 없었던 품목이 165개로 대다수를 차지함.
- 모래, 마늘 등 북한의 77개 대남 주력 수출품은 여전히 중국에 수출되지 않음.
- 북중교역 데이터 회귀분석 결과, 북한이 대남 수출 감소분을 대중 수출로 돌리고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남 수출이 감소한 제품일수록 생산에 투입된 자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됨으로써 대중 수출 역시 감소하는 경향이 존재할 가능성마저 관찰됨.
 - * 다만, 5.24조치 이후 대중 수출이 빠르게 증대한 섬유 등 일부 위탁가공 제품의 경우에는 이러한 대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 북한은 대남 수출이 불가능해진 제품을 중국에도 수출하기 어렵게 되자, 김정일의 지시로 수출을 제한하던 무연탄 등 전략물자의 대중수출을 급격히 확대함으로써 (동절기) 에너지 부족 현상이 야기 되는 등 내부 경제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10년 1~5월중 4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은 2010년 6~12월중 총 3.5억 달러, 2011년 1~4월중에도 2.7억 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급등함으로써 같은 기간 대남수출의 감소분 전체를 상쇄

○ 이는 5.24 조치로 북한의 경화 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며, 올해 초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쌀과 불(전기)을 달라’는 항의가 나타났다는 보도와도 일맥상통함.

□ 5.24 조치와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운영의 부담은 북한의 시장 환율 움직임을 통해서도 관찰됨.

○ 북한의 시장 환율은 2009년 말 화폐개혁의 실패로 2010년 1~3월중 급등세를 보였으나, 4~6월 중에는 이미 안정세를 유지

○ 그러나 2010년 7~11월 중에는 다시 한 차례 레벨-업 되어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직전의 5.24 조치로 예상되는 경화 수입 감소 가능성에 북한시장이 반응한 것으로, 다만 그 영향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아 본격적인 환율 상승추세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의 환율은 2010년 12월을 기점으로 두 배 가량 폭등했는데, 이는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불안감이 진정된 올해 3월 이후에도 북한의 환율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5.24 조치와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경화 사정의 어려움을 시장에서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북한의 환율 급등은 시장의 식량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주민들의 삶에도 깊은 주름살을 드리우는 형국임.

○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북한의 시장 쌀 가격은 kg당 500~600원 수준에서 최고 2,000~2,200원 정도로 상승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3배 가량 급등한 환율효과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실제 이러한 환율 효과를 제거한 달러화 표시 북한 쌀 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커다란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관찰됨.

* 북한의 시장 쌀 가격은 “중국의 쌀 가격 × 북한 원화 환율 × 마진”에 의해 정해지는 가격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

□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올해 상반기 북한의 실물경제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00년대 중반 이후 전반적 실물경제가 하강하는 추세에 놓여 있는데다, 5.24 조치와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대외부문의 악재가 겹쳐 있고, 무엇보다 북한당국이 올해 상반기 실물경제에 대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놓지 못했으며 선전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 올해 상반기 북한경제는 5.24 조치 및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대외 부문 악재의 국내경제로의 파급, 환율 급등과 식량가격 상승 등 주민생활 불안, 실물경제 부진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상황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북한당국은 2012년 강성대국 선포와 관련해 일시적으로나마 국내경제를 회복시켜야할 강력한 정치적 유인을 갖고 있음.

□ 따라서 북한당국이 기존에 보유한 모든 자원을 일시에 경기진작에 쏟아 붓거나, 해외로부터 일정한 자원유입을 성사시킬 수만 있다면, 올해 하반기와 내년도 북한경제가 반짝 회복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부문별 동향

〈산업 및 실물경제〉

□ 2011년 상반기 북한은 농업과 함께 경공업 부문을 주공전선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화학 부문에서도 주체공업을 강조하며 선행부문의 생산보장과 확대생산을 독려했음.

○ 북한은 2011년을 '경공업의 해'로 선언, 전년 대비 12.9%의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고, 경공업 공장의 현대화·과학화를 강조함.

* 2.8비날론연합기업소, 홍남비료연합기업소 등 화학부문의 생산능력 확충을 농업으로 연결시켜 생산구조를 복구하려는 시도로 해석됨.

○ 한편 전력 및 석탄 등 기간산업과 금속, 기계 부문에서도 소위 주체공업을 강조하며 생산보장과 확대생산을 독려했음.

* 전력난 해소를 위해 기존 수력·화력발전소에 대한 재건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특히 기계부문은 CNC(컴퓨터 수치제어)화를 강조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 북한의 주요 산업부문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경공업을 특별히 강조했음에도 1/4분기에 경공업 부문 공업 총생산과 식료일용공업의 생산이 전년 대비 각각 6% 및 16% 증가했다고 보도한 것이 구체적 성과보도의 핵심이며, 이는 2.8비날론연합기업소 등 화학 부문으로부터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음을 시사함.

○ 전력 및 금속부문도 성과실적에 대한 별다른 동향보도가 없어 뚜렷한 성과달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기계부문은 생산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추정됨.

- 다만 석탄부문에서는 상반기에 중국수출이 대규모로 이루어져 상당량의 증산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 또한 내수부문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농업과 식량난 상황〉

- 식량조달 및 소비 상황과 주요 도시식량가격 변동상황 등 2011년 북한의 식량수급상황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는 작년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음.
- 다만 국제사회의 지원이 감소되거나 중단된 후 4년이 지나 ‘비공식적인 무형의 식량예비’가 소진됨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중앙의 배급감소와 사경제 활동의 확대에 따라 식량부족 영향이 취약계층에게 보다 집중 되어 있을 개연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올해 남은기간에도 국제사회의 지원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한의 인도적 상황은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 북한의 농업생산 여건은 올해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의 현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자체적으로 농자재의 조달 능력을 높일 수 없으며 농업생산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없음.

〈시장 동향〉

- 시장에 대한 억제와 허용의 딜레마에서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 택한 길은 시장에 대한 허용이며, 이에 따라 시장은 외관상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 것으로 보임.

- 화폐개혁의 충격과 승계체제의 안정적 이행, 국가차원의 ‘먹는 문제’ 해결에 따르는 곤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북한은 시장억제보다 허용을 선택했음.
- 시장기능이 회복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화폐개혁의 후유증(물가 및 환율 폭등, 소득감소 등)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시장내부의 사정을 보면 거래량 감소, 부익부 빈익빈 심화, 물가 및 환율의 상승 등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지난해 11월 이후 급등한 물가가 지속되고, 달러화 현상이 확대되어 물가 및 환율상승의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어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

〈대외무역동향〉

- 2010년 북한의 대외무역규모는 UN의 대북제재, 우리정부의 5.24 조치에도 전년대비 19.5% 증가한 60억 8,500만달러(남북교역 포함)를 달성했음.
- 북한의 대외무역 증가는 북중무역이 전년대비 29.3% 증가한 34억 6,600만달러의 실적을 보였기 때문임.
- 따라서 북중무역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점하는 비중은 2009년 52.6%에서 2010년에는 56.9%로 상승
- 수출 품목이 특정품목에 한정되어 있고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됨.
- 올해 4월까지의 북중무역 현황을 볼 때 대중의존도는 더욱 심화한 것으로 보임.

- 4월까지의 북중무역규모는 무연탄의 대중수출 급증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14억 2,967만달러를 시현
- 식량, 에너지, 비료 등 주요 전략물자에 대한 대중수입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
- 올해 북한의 대중수출에서 지하자원 수출이 점하는 비중은 72.4%에 달하며 특히 4월에는 80% 수준으로 급격히 높아졌음.
- 특히 2010년 초 4% 미만 수준이었던 무연탄의 대중수출비중은 올해 4월 그 비중이 57%에 달하고 있음.
- 무연탄의 대중수출 급증은 북한의 외화부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지만 무연탄 단가의 상승 또한 대중수출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남북경협 동향〉

- 2011년 남북교역 실적은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의 교역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5.24 조치의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 5.24 조치에 의해 무역제한이 이루어진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은 지난해의 일시적인 유예조치가 끝난 올해 상반기에 교역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5.24조치의 영향이 본격화 되고 있음을 시사함.
 -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의 상반기실적을 보면 반출은 전무하고, 일부 반입조차 3월(18만달러), 4월(8천달러)에 들어 거의 사라지고 있음.
- 반면 5.24 조치에서 제외된 개성공단외의 경우 큰 영향 없이 가동, 현재 남북교역실적의 대부분이 개성공단 교역실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일정 정도의 관리노력이 필요함.

- 올해 상반기 남북교역실적은 거의 전부가 개성공단의 교역실적으로 구성되어 향후의 남북교역실적은 개성공단의 정상가동 여부에 달려있음을 시사함.

* 2011년 1~4월까지의 개성공단 교역실적은 약 5억 3천만 달러로 같은 기간 전체 남북교역실적(약 5억 3천 5백만 달러)의 99%를 차지

- 연초에 북한이 제의한 각종 회담들(백두산화산폭발회담, 군사실무회담, 적십자회담 등)이 성과 없이 무산되고, 여전히 긴장과 대결국면이 지속되고 있지만 개성공단의 정상적 가동을 위한 관리노력은 지속될 필요가 있음.